大韓保健協會學術誌 : 第 28 券 第 3 號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Vol. 28, No. 3, 225~238, September 2002

原 著

서울 소재 7개 종합병원 암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양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의과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행정학과
이은일, 신유철, 이주현*, 김순덕, 김해준, 조무성**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Cancer Patients at 7 General Hospitals in Seoul

Eunil Lee, You-Chol Shin, Joohyun Lee*, Soon-Duck Kim, Hae-Joon Kim, Moo-Sung Jo**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and
Institute for Environmental Health, Medical Science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ollege of Economics and Commerce, Korea University*

= ABSTRACT =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evalence and kind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used in cancer patients.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by trained interviewers for use of CAM, demographic information, type of cancer and cancer stage for 512 cancer patients in 7 general hospitals in Seoul. Among the cancer patients, the total number of inpatients was 315 and outpatients 197.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mong cancer patients, 55.5% of them used CAM. The patients who were 30's and 40's showed high rate of CAM use(59.2%, 64.7%). Stomach cancer patients showed highest rate of CAM use(75.6%) among cancer patients. Liver cancer and breast cancer patients also showed high rate of CAM use (71.1%, 60.3%). The patients received chemotherapy showed higher rate of CAM use(60.6%) than the patients not received chemotherapy(43.7%).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stomach cancer, liver cancer, and chemothera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for use of CAM. Among cancer patients, the use of herbs was highest(86.0%), followed by diet(46.5%) and chinese medicine(14.1%). Elm tree was the most frequently used(49.6%), however, total usage of mushrooms such as Sang-Whang, Young-Gee, Agaricus, Woon-Gee were 57%.

The number of CAM items used by cancer patients were limited and it is necessary for scientific data to prove the their effect.

Key word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ncer, chemotherapy

I. 서 론

"대체요법은 현대 의학에 실망한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다른 형태의 치료를 통칭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1]. 대체요법은 동정요법, 자연요법, 침술, 최면술 등 매우 다양하며, 종교적인 치료까지도 포함되는 매우 큰 범주를 가지고 있고, 대체요법에 대한 명칭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정통적인 치료방법과 다른 이런 방법들을 대체의학, 대체 및 보조요법, 비정통요법, 증명되지 않은 요법, 의문스러운 요법[2] 등 다양하게 불리어 지고 있다. 대체의학이라는 표현은 서양 정통의학을 대체하여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의학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잘못된 표현

Correspondence to: Eunil Lee
Tel: 02) 920-6170; Fax: 02) 927-7220
E-mail: eunil@korea.ac.kr

이라고 생각되고 있다[3].

대체요법의 효과는 위약효과에 불과하다는 의견[4]부터, 대체의학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버리고 돌팔이 요법이라는 말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5]. 대체의학 중 일부 약초 제재는 간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스테로이드 등을 무분별하게 첨가하는 경우도 있고, 수은 등 독성물질에 오염된 경우도 있고, 미생물에 오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6]. 그러나 대체요법의 사용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대체요법 중에서 돌팔이 요법 (quackery)은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보조적인 요법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진 것을 느끼고, 정서적 신체적 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7]. 따라서 대체요법들은 부분적으로 서양정통의학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고, 미국 NIH에서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이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Alternative Medicine"을 대체의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체요법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의료계에서 일반적이지만, 일반인들과 대체요법 시술자들은 대체의학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 미국 의학계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암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에도 미국에서 암환자의 증가는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미국의회는 암의 대체요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8]. 이후 1992년 NIH 산하에 대체요법 연구부(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를 두고, 대체요법의 연구에 1992년에는 2백만불의 연구비를, 1998년에는 2천만불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5천만달러를 지출하였고, 몇몇 요법에 대해서는 그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9, 10]. 미국에서 이런 연구 투자를 하는 것은 대체요법에 대한 의회의 지지, 대체요법 연구에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체요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전화조사 대상자의 34%가 이 요법을 사용하였고, 젊은 연령층 (25-49세),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이 더 많으며, 이에 지출하는 비용이 매년 137억불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11].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양 정통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미국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대체요법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주민의 25%, 독일, 프랑스, 호주의 경우는 50%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대체요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2, 13]. 우리나라에서도 Eisenberg 등[11]의 연구와 유사한 이상일등의 연구[14]가 수행되어 전체 인구 중 전화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 29%가 한방을 포함한 보완 및 대체의학을 사용하였고, 보완요법 이용에 따른 비용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 되어 우리나라도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정통의학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암환자들은 이러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 비율이 미국의 경우 54%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우리나라의 암환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도 최윤정 등은 암환자의 63%[16], 이건세 등은 53%[17], 박형숙과 이윤미는 56.9%[18]가 대체요법을 사용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요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암 환자의 경우 더 높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앞에 인용한 수편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모두 1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여러 병원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암환자의 경우, 병원 입원 이후에 방사선 치료 등 외래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암환자 입원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 암환자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완대체요법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중앙암등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중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고 암환자접수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10개의 3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 중 연구협조에 동의하기로 한 7개 병원을 최종 연구대상병원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설문조사기간(1999년 4월 1일 ~ 1999년 6월 31일) 중 대상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방사선과 외래를 이용하고 있는 암환자 중에 설문에 응한 입원 암환자 315명과 외래 암환자 197명 등 총 512명이었다 (Table 1). 환자들 중 남성은 242명, 여성은 270명으로 여성이 약간 많았고, 연령은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분포하였는데, 대상자 중 19세인 환자가 2명이 있어서 이들은 20대로 분류하였다. 환자들 중 412명(80.7%)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력을 갖고 있고, 종교는 기독교, 무교, 불교, 가톨릭 순이었다. 연구 대상병원이 모두 서울 지역에 위치하였